

시·도 남보다 못한 가족 되나...“이용섭·김영록이 나서라”

광주시·전남도 떨어진 상생...‘혁신도시 시즌2’ 뼈거

광주시와 전남도가 ‘혁신도시 시즌2’ 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전에 각자 뛰어들면서 시도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시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추가 공공기관을 광주지역에 유치해 ‘광주 혁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시도 상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도 ‘동상이몽’ 언제까지...과거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한국전력을 어느 지역이 유치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한 해 예산이 72조원인 거대 공기업 환전이 옮겨오면 관련 기업 유치가 수월해지고,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시와 전남도는 따로 혁신도시를 조성하지 않는 대신 나주에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환전과 16개 공공기관을 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는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작업도 따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가 정부에 제출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추가이전 공공기관 유치대상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는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예술, 농생명, 환경생태, 과학기술·기타, 복지·노동 등 7개 분야 35곳의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경관단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산업기

공동발전 기금 등 불협화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따로 진행

혁신도시 거버넌스 구성 나서야

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이다. 전남도는 에너지화학, 농생명, 문화예술, 정보통신, 해양수산, 환경 등 22개의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출한 유치 희망 공공기관 중 18곳은 중복되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7개는 광주시만 요청했고, 해양환경공단 등 4곳은 전남도만 유치를 건의했다.

◇남보다 못한 가족 되나...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22개에 이른다. 현재 정부의 뚜렷한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련 용역을 올 1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이전 기관과 일정,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은 기존 혁신도시들로 예상되지만, ‘도시 재생이 필요한 곳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전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의 혁신도시 조성으로 대도시 구도심의 공동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2는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지역도 이전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자 추가 이전 공공기관을 선정해 정부에 제출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광주시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아닌 광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지역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실상 ‘상생’이 아닌 ‘결별’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 기금 조성 등에 전남도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교수·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은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풀어야 한다”면서 “발전기금 조성과 복합혁신센터 건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시 거버넌스’를 구성해 상생 구조를 만든 뒤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기밀유출 공익제보 두둔 정당 형태에 유감”

문 대통령 한국당 비판...“국가운영 근본 상식 지켜야”

내달 9일부터 유럽 3국 순방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외교관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의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는 동시에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비호하는 정당의 형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왔고 앞으로도 국민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락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 통화 유출 파문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통화 내용 공개를 ‘공익제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당리당락’으로 규정,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직자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이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노르웨이·스웨덴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점 과제인 혁신성장·평화·포용국가 실현 행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또한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다른 기여를 해 온 이들 국가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은영의 '그림 생각'

(269) 자녀 체벌권

그림을 마주한 순간, 악독한 부모에게 벌을 받고 문 밖으로 쫓겨난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가슴이 아찔했다. 드물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체벌 가운데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모두 벗긴 후 대문 밖으로 쫓아냈다는 어두운 경험담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이다. 어떤 부모가 그럴까 싶었는데, 잠긴 문을 들어가고 예쁘고 있는 작은 아이의 그림을 보니 문 밖으로 쫓아내는 자녀 학대의 역사는 유

사랑과 행복이 들어갈 틈 없이 꽁꽁 닫힌 집

구구하구하 싶은 지레짐작도 하게 된다. 안나 메릿(1844-1930)의 ‘쫓겨난 사랑’(1889년 작)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믿었던 내용과는 다른 그림이다. 사랑의 신 큐피드가 발거벗은 채 닫힌 문 밖에서 절망하고, 그 집은 더이상 사랑과 행복이 들어갈 틈이 없이 문을 꽁꽁 닫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안나 메릿은 그림에 재능을 보였지만 미술공부를 할 수 없었던 미국을 떠나 유럽에서 미술공부를 했다. 후일 미술평론가인 헨리 메릿과 결혼해 남편의 격려로 재능을 펼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남편과 사별하게 된다.

안나 메릿은 그 이별의 깊은 슬픔을 ‘쫓겨난 사랑’의 이미지로 표현했다. 사

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은 집은 사랑의 신 큐피드가 쫓겨난 집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에서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고, 그 아픔은 집에서 쫓겨난 아이의 처절한 절망과 같다는 뜻일 것이다.

얼마 전 정부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내놓자 찬반 의견이 뜨겁다. ‘사랑의 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주장이 팽팽하다는 것이다. 최근 도를 넘는 자녀 학대 뉴스를 떠올리자면, 법으로도 자녀를 징계하거나 체벌하는 일은 금지해야 할 것 같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박사〉



안나 메릿 작 '쫓겨난 사랑'.

2019 해남이 빛나는 미래로 다시 뚝니다!



- 01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급
- 02 지역경제 활성화 해남 사랑 상품권 발행
- 03 국내 최대 규모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개관
- 04 해남·진도·완도 연계 남도광역추모공원 개원
- 05 해남의 새로운 랜드마크 해남군·군의회 신청사 착공